

지역 소식통

고창, 민원인에 전화 걸 때 '부서행정 전화' 정보 표시

고창군이 관공서를 사칭한 전화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행정전화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레터링 서비스'를 도입한다.

군이 민원인에게 전화를 걸 때 민원인의 스마트폰 화면에 고창군 이미지와 함께 부서 이름 및 전화번호가 표시된다. 통화가 끝나면 군청 누리집 카드뉴스와 관광 정보 안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오는 10일 까지 운영 테스트를 거쳐 11일부터 정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설치된 '보이는 ARS 서비스 공유 앱'을 활용하여 제공한다. 애플 정책상 미지원되는 아이폰과 '보이는 ARS 서비스 공유 앱'이 설치되지 않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를 통해 '부재중 통화 알림'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사용을 원치 않는 민원인은 '수신거부' 버튼을 통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 제79회 구강보건 의 날 기념 구강건강 홍보관 운영

부안군은 지난 5일 제79회 구강보건의 날(6월 9일)을 맞아 부안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우리 건강, 이 행복에서부터'라는 주제로 구강건강 홍보관을 운영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구강보건의 날 행사는 직장인의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관심 유도를 시작으로 다양한 계층이 함께하는 행사를 만들기 위해 진행됐다. 행사 내용은 구강체험관(인속 세균검사, 구강건조증 검사)운영, 무료 구강검진 및 상담, 구강위생용품 전시 및 올바른 사용법 교육, 구강관리용품 꾸러미 증정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체험 행사를 통해 많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부안군 보건소는 구강건강 홍보 체험관 운영을 시작으로 6월 4일부터 14일까지 '순회 구강건강관리 주간'을 운영해 다양한 계층의 참여로 부안군민 전체가 함께하는 구강보건의 날 주관을 만들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카드형상품권 택시요금 결제 본격

정읍시, 정읍사랑상품권 11일부터 개인·법인택시서 사용... 10% 할인 혜택도

정읍읍시가 오는 11일부터 정읍사랑상품권(카드형 상품권)의 택시 요금 결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시는 한국조폐공사, 교통사업자(티머니, 이동의 즐거움) 간 결제 연동 시스템 구축을 거쳐 택시운수업(개인택시 338대, 법인택시 168대) 종사자로부터 신규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받아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택시 이용객은 모바일(앱)형이 아닌 카드형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물품 구매와 마찬가지로 10% 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정읍사랑상품권 카드는 정읍 지역 상품권 판매 대행사인 농협은행과 전북은행, 새마을금고, 신협을 방문하여 발급 받으면 된다.

시에 따르면 정읍사랑상품권은 올해 1분기 200억원, 2~3분기 각 150억원, 4분기 100억원 모두 총 600억원 규모로 발행된다.

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으로 2분기 발행액이 5월에 끝났다"며 "5월 말 기준 누적 가입자는 5만 9,000여명, 가맹점은 5,800개소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3분기 발행액 150억원은 7월 1일부터 구매 가능하다. 1인 월 70만원, 연 600만원, 최대 보유 한도는 150만원이다. 지역상품권 CHAK앱 또는 정읍사랑상품권 카드를 통해 구매(충전) 가능하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사랑상품권과 택시요금 결제 연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택시 종사자와 이용자 간 현금 거래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사용자 편의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군-광주광역시 남구, 자매결연 협약 체결

주민 이익증진 협력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과 광주광역시 남구가 상생발전을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7일 고창군청 2층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심덕섭 고창군수, 김병내 남구청장, 임정호 고창군의회 군의장, 남호현 남구의회 부의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0월 양 도시 단체장 간 상생발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적극적인 실무진 협의를 통해 전반적인 교류대상사업을 확정하여 추진됐다.

고창군과 광주 남구는 행정, 경제, 문화, 관광, 교육, 체육, 농업, 민간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교류를 통해 주민들의 이익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고창군의 국내 자매기관은 8개 도시와 1개 합(艦) 총 9곳으로 늘어났다. 앞서 군은 1996년 서울 관악구와의 자매결연 체결을 시작으로 부안 동래구, 경북 삼주시, 서울 성북구, 대한민국



지난 7일 고창군청 2층 상황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과 광주광역시 남구가 상생발전을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해군함정 고창함(艦), 서울 송파구, 경북 고령군, 서울 마포구와 자매의 연을 맺고 도시의 발전을 위한 교류를 이어왔다.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은 "이번 자매결연 체결이 형식적인 행사가 아닌 양 도시간 실질적인 지역발전 도모의 초

석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양 도시가 동반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여러 분야에서 상부상조할 수 있는 교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청년 창업가 역량 강화 컨설팅

정읍시가 지난 5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역 내 청년 창업가 10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4월 대상자는 '정읍시 로컬 청년창업 지원사업' 모집 공고를 거쳐 모두 10명을 선정했다.

청년발전기금을 활용해 올해로 3년째 추진되는 사업이다. 시는 "잠재력 있는 청년 창업가에게 초기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창업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창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이라고 밝혔다. 청년 창업가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라민 것.

첫 일정은 오리엔테이션은 지난 5일 시작했다. 이후 창업지원 사업 정보 제공, 지적 재산권 및 기업가 정신에 관한 집합 교육 3회, 마케팅과 판로개척, 세무 회계, 사업계획서 작성법,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1대 1 맞춤형 컨설팅 4회 등을 진행한다.

이 과정을 수료한 청년 창업가들은 연 500만원씩 최대 3년 간 총 1,500만원의 창업자금을 지원받는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이 지난 6~7일 '2024년 고창갯벌 탐조캠프'를 고창갯벌과 상하농원 일대에서 진행했다.

'2024년 고창갯벌 탐조캠프' 첫회 성료

고창갯벌·상하농원 일대

고창군이 지난 6~7일 '2024년 고창갯벌 탐조캠프'를 고창갯벌과 상하농원 일대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고창갯벌 탐조캠프는 초등학교 3학년년부터 중학생까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1박2일동안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에서 탐조체험과 생태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인 '2024년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금년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지난 5일 전국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한 결과, 총 175가족 500명이 참가 신청을 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으며 신청자들의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9개팀 34명을 최종 선발했다.

캠프 첫날 탐사르고갯벌센터에서 모인 참가자들은 오리엔테이션과 탐조교육을 받은 후 고창갯벌에서 탐조 활동을 펼쳤으며, 캠프 2일차에는 만물갯벌 체험학습장에서 갯벌 탐조 체험·조개 채집활동·씨글라스 활용 체험 등이 진행되었다.

2024년 고창갯벌 탐조캠프는 총 2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2차 캠프는 오는 10월 개최된다.

고창군은 이번 캠프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고창갯벌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세계자연유산'의 개념이 생소할 아동·청소년들이 장기적으로 세계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갯벌 보존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100MW 규모 새만금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사업시행자 공모

부안군은 지난 7일 100MW 규모의 새만금 부안군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사업시행자 모집을 재공고했다.

세부적인 공고 내용은 부안군청 홈페이지(http://www.buan.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2024년 7월 16일까지 40일간 공고한 후 사업제안서를 평가 위원회에서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새만금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100MW씩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사업 권리를 부여받은 4개 지방자치단체(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김제시, 군산시)가 추진하고 있으며, 부안군은 배분된 100MW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하고, 발전소 건설 후 20년간 발전소를 운영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부안군은 세 차례 발전사업 사업시

행자 모집을 공고했으나 사업자들의 관심도 하락으로 유찰되자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재공고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재공고는 지난 4월 공모와 동일한 공모 요건으로 진행되며 사업설명회를 마련하여 본 공모의 목적과 공모 방향, 사업구조 등을 사업자들에게 안내하여 사업자들이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아울러, 부안군은 사업성 향상을 위해 새만금 부지 사용료 감면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한편,

총사업비의 일부가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추진하여 발전 수익이 우리 지역에 최대한 환원될 수 있도록 이익 공유 방안을 제안하게 하여 추후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를 사업협약에 반영토록 노력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